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 논문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 연구

- 지역예비군의 인식을 중심으로 -

HANSUNG UNIVERSITY

2026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김 해 왕

HANSUNG
UNIVERSITY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규호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 연구

- 지역예비군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Reserve Forces Training Duration on Participation Rat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the Perceptions of Local Reserve Forces

2026년 6월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김 해 왕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규호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 연구

- 지역예비군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Reserve Forces Training Duration on Participation Rat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the Perceptions of Local Reserve Forces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6월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김 해 왕

김해왕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6년 6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이상화 (인)

심 사 위 원 박재욱 (인)

심 사 위 원 조규호 (인)

국 문 초 록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 연구
- 지역예비군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김 해 왕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상체계가 이들 간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병역자원 감소와 안보환경의 복합화로 인해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예비군 훈련제도는 참여율 저하와 보상체계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군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훈련시간과 보상체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시간을 독립변수, 참여율을 종속변수, 보상체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참여율은 단순한 출석 여부가 아닌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실제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시간이 증가할수록 예비군이 체감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적절한 보상수준과 제도적 지원이 예비군의 참여 동기를 향상시키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상체계가 참여율을 높이는 직접적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훈련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까지는 기능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예비군 참여 행동은 훈련시간이라는 비용 요인과 보상체계라는 편익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설명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하나의 분석 틀에서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예비군 참여 행동을 '비용-편익'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향후 예비군 정책은 훈련시간의 적정화, 보상체계의 현실화, 참여유도형 제도 설계 및 통합적 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율과 전투준비태세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예비군, 훈련시간, 참여율, 보상체계, 조절 효과, 합리적 선택이론, 전투준비태세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2 연구의 목적 ····· 3

1.3 연구문제 ····· 4

1.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II. 선행연구 고찰 ····· 6

2.1 예비전력 및 예비군 정의와 중요성 ····· 6

2.2 예비군 제도의 개념과 특성 ····· 8

2.3 예비군 훈련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 9

2.4 예비군 참여율(참여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 11

2.5 예비군 보상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 12

2.6 변수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 14

2.7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5

III. 연구설계 ····· 18

3.1 연구모형 설정 ····· 18

3.2 연구가설 설정 ····· 19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 20

3.4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 22

3.5 분석방법 ····· 22

IV. 연구결과 ····· 25
4.1 표본의 특성 ····· 25
4.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 27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 29
4.4 가설 검증 ····· 31
4.5 분석결과 종합 ····· 34

V. 결 론 ····· 39
5.1 연구결과 요약 ····· 39
5.2 이론적 시사점 ····· 40
5.3 정책적 함의 ····· 42
5.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 45

참 고 문 헌 ····· 47

부 록 ····· 48

ABSTRACT ····· 52

HANSUNG UNIVERSITY

표 목 차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8
[표 4-2] 신뢰도 분석결과 ····· 30
[표 4-3] 기술통계 분석결과 ····· 32
[표 4-4] 상관관계 분석결과 ····· 33
[표 4-5] 다중회귀 분석결과 ····· 34
[표 4-6] 조절회귀 분석결과 ····· 36

HANSUNG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19

HANSUNG UNIVERSITY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의 안보환경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 간 전면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지적 충돌, 비대칭 위협, 테러 및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 방식 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비군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사시 신속하게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예비전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

우리나라의 예비군 제도는 전시 전투력 증강과 후방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예비군 훈련 제도는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예비군 훈련이 제한된 시간과 형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제 작전 수행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찬권(2009)은 불시동원 대비훈련이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 작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홍재익(2021)은 훈련장 여건과 훈련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훈련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은 현역 군 복무와 달리 민간인의 신분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예비군은 직장, 학업,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훈련에 참여해야 하므로, 훈련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단순한 시간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훈련 참여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은 현대전에서 예비전력이 단순한 보조전력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전력임을 보여 주었음. 특히 우크라이나는 예비군과 영토방위군을 신속히 동원하여 러시아의 초기 공세를 저지하였으며, 장기전에서도 지속적인 병력보충을 통해 전쟁 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예비군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문제는 단순한 제도적 운영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등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소득감소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유희(2019)는 현재 지급되는 보상수준은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다수의 예비군이 보상체계의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군 훈련 참여가 단순한 의무 수행을 넘어 개인의 경제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훈련시간은 전투준비태세 유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요소이지만, 동시에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훈련시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훈련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개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참여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훈련시간은 단순히 확대 또는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율과의 관계 속에서 적정수준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체계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보상은 훈련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예비군의 사기와 참여 의지를 높이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 조규호(2018)는 적절한 보상수준이 확보될 경우 예비군의 참여도가 향상되고 전투준비태세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이 보상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병력 규모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수행능력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비군 훈련 참여율과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와 개인 수용성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개인의 참여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참여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보상체계가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예비군 훈련제도의 효율성과 참여율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상체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최근 병역자원 감소와 안보환경의 복합화로 인해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제도는 훈련 참여율 저하와 보상체계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예비군은 현역군인과 달리 민간인의 신분으로 직장생활, 학업,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군 참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예비군 관련 연구는 주로 훈련제도 개선, 훈련 만족도, 보상수준 향상 등 개별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비군 참여 행동을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훈련시간을 비용 요인으로, 보상체계를 편익 요인으로 설정하여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훈련시간의 적정성과 훈련시간 증가가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보상체계가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보상과 제도적 지원이 예비군의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보상체계가 훈련시간과 참여율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보상체계가 훈련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군 참여 행동을 비용–편익 관점에서 설명하고, 훈련시간의 적정화와 보상체계의 현실화를 포함한 예비군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보상체계가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예비군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훈련시간의 증가는 예비군의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예비군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보상수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예비군의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를 향상시키는가?

셋째, 보상체계는 훈련시간과 참여율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는가? 즉, 보상체계는 훈련시간 증가에 따른 참여율 감소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

1.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지역예비군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훈련시간, 참여율 및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참여율은 단순한 출석 여부뿐만 아니라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실제 예비군 훈련 경험이 있는 지역예비군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예비군은 동원예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훈련 참여와 불참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훈련시간과 보상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예비군 제도, 훈련시간, 참여율 및 보상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자료를 검토하여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훈련시간에 대한 인식,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 참여율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

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훈련시간과 보상체계가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보상체계가 훈련시간과 참여율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예비군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예비군 훈련제도와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HANSUNG UNIVERSITY

Ⅱ. 선행연구 고찰

2.1 예비전력 및 예비군 정의와 중요성

예비전력이란 국가가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동원하여 군사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평시에 유지·관리하는 잠재적인 군사력으로 정의된다. 이는 상비전력(현역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평시에는 민간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유사시 군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훈련된 인적자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예비전력을 “전시 전력증강과 국가방위를 위해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병력보충 수준을 넘어 전쟁 지속능력(war sustainability)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현대전 양상이 장기전·총력전의 성격을 띠는 상황에서 예비전력은 초기 대응 이후의 전력 보충 및 작전 지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군사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예비군이란 예비전력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현역 복무를 마친 인원이 일정 기간 동안 군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훈련을 수행하며 유사시 동원되는 조직화 된 전력을 의미한다.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1968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예비군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예비군은 크게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으로 구분되며, 각각 전시 동원 및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예비군 제도는 단순한 병력보충 수단이 아니라, 평시에는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면서도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이중적 성격(dual status)을 가진다.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및 평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시 임무 측면에서 예비군은 동원령 선포 시 지정된 부대로 신속히 편성되어 전투부대 증원, 후방지역 방호, 병참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초기 전투에서 손실된 전력을 보충하고, 작전 지속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평시 임무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기술을 유지하고,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대민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셋째, 지역방위 역할 측면에서 지역예비군은 주요시설 방호, 대테러 대응, 후방 교란 세력 차단 등 지역 단위의 안보 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현대 안보환경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의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예비군은 현역의 단순한 보조전력이 아니라, 전시 작전 수행과 평시 안보 유지에 동시에 기여하는 다기능 전력(multifunctional force)으로 평가된다.

예비전력 및 예비군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군사적 측면에서 예비전력은 전쟁 수행능력의 핵심 기반이다. 현대전은 단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며, 장기적인 병력 소모를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확보 여부가 전쟁 지속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예비전력은 효율적인 국방력 유지 수단이다. 상비군 규모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므로, 평시에는 민간 인력으로 유지하면서 필요시 군사력으로 전환이 가능한 예비군 제도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방안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예비군 제도는 국민 전체의 안보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국민과 군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안보환경 측면에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초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대비태세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는 예비군의 전투준비태세 수준에 크게 의존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예비전력과 예비군은 전시 전력 보충기능을 넘어 국가안보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안보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예비군 제도의 개념과 특성

예비군 제도는 국가가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상비전력을 보완하고, 평시에는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병력 운용체계라 할 수 있다. 예비군은 단순히 현역 복무를 마친 인원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되어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예비전력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

강갑칠(1999)은 예비군 제도를 국가가 전쟁억제와 전력보강을 위해 유지·발전시켜야 할 필수 제도로 파악하면서, 예비군이 “가장 경제적이고 전쟁억제 전력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는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창설 이후 예비군은 향토방위와 국가 재건, 재난복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 왔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연구에서도 유지된다. 정유희(2019)는 예비군을 단순한 병력 예비자원이 아니라 상비전력 보강, 지역방위, 전시 동원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 보며, 예비군의 개념과 역할, 중요성을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현행 예비군 훈련체계는 크게 동원예비군 훈련과 지역예비군 훈련으로 나뉜다. 정유희(2019)에 따르면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을 위한 기본훈련과, 거주지 또는 직장 일대에서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작계훈련으로 구분된다. 또한 동원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24.1.1.부 동미참훈련 명칭이 동원훈련 II형으로 변경)으로 구성되며, 연차와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훈련시간이 달라지는 구조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유희(2019)의 연구에 제시된 표를 보면, 병 1~4년차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고,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병 5~6년차는 작계훈련 12시간과 기본훈련 8시간을 이수하는 구조이며, 간부 예비군은 1~6년차 동안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2박 3일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입영훈련)을 받는다.

박세희(2024)도 병 동원예비군은 동원훈련 2박 3일 28시간, 동미참훈련 4일 32시간, 지역예비군은 작계훈련 12시간과 기본훈련 8시간으로 구분된다고 정리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의 특징은 첫째, 현역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병력자원을 단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 둘째, 동원 중심 전력

과 지역방위 중심 전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점, 셋째, 훈련시간과 훈련유형이 연차·신분·지정 여부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 구조는 제도적 정교함을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예비군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와 수용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박세희(2024)는 훈련유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참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 관리체계까지 중첩되어 있어 행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훈련 당사자에게도 불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예비군 제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필수적 제도이지만, 그 제도의 실효성은 실제 훈련체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예비군 개인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군 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곧 훈련시간, 참여율, 보상체계 간 관계를 해석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2.3 예비군 훈련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예비군 훈련시간은 예비전력이 전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숙련도와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투입을 의미한다. 훈련시간은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예비군의 숙련도 유지, 임무 숙달, 지휘체계 적응, 장비 운용능력 형성 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훈련시간을 어떻게 부과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예비군 제도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훈련시간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지 않다. 한편에서는 현재 훈련시간이 실전 대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인의 신분에서 이행하는 예비군 훈련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시간 부과가 오히려 참여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본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훈련시간은 군사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중요변수이다.

먼저 훈련시간의 부족론을 보면, 강갑칠(1999)은 우리나라 예비군 복무기간과 훈련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짧고, 특히 동원훈련의 경우 정예화를 위한 교육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훈련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김찬권(2009) 역시 전투력 유지와 상비전력 수준의 숙련도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훈련시간을 지금보다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기존의 훈련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화 훈련장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단순한 시간 축소

요구보다 실질적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조규호(2012)의 병력동원제도 연구도 동원훈련시간의 단계적 증가계획을 제시한다. 해당 연구는 국방부의 예비전력 정책서를 인용하여 동원훈련시간을 기존 2박 3일에서 3박 4일, 장기적으로는 4박 5일로 확대하는 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보다 실전적으로 숙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훈련시간이 부족할 경우 예비전력의 실제 활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군사적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반면 훈련시간 과부담론은 예비군의 현실적 처지에 주목한다. 정유희(2019)는 예비군 훈련유형과 훈련시간이 법·훈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나, 이는 예비군 개인이 생업과 병행해야 하는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박세희(2024)는 현재의 복잡한 훈련유형과 시간 체계가 예비군에게 단순한 이유로도 불참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훈련시간을 단순히 “많을수록 좋다”거나 “적을수록 좋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조직이론과 인적자원 관리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정 수준의 훈련과 자극은 조직성과를 높이지만, 과도한 부담은 만족도 저하와 회피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조규호(2015)의 갈등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조직 내 특정 요인이 적절한 수준에서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과도해질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관점은 본 연구의 훈련시간 해석에도 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훈련시간은 전투준비태세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객관적 요소이면서도, 동시에 예비군 개인이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는 주관적 요인으로 본다. 다시 말해, 훈련시간은 군사적 필요성과 개인적 비용의 접점에 위치한 변수이며, 참여율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 예비군 참여율(참여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참여율은 일반적으로 실제 훈련 참여 여부와 참석 빈도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출석 개념을 넘어 훈련에 대한 태도, 성실성, 재참여 의향, 제도 수용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예비군 훈련이 단순한 물리적 참석만으로 설명되기보다, 훈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수용 태도에 의해 지속적인 참여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실제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1년간 실제 훈련 참여 경험, 불참 및 연기 경험, 성실 참여 정도, 향후 적극적 참여 의향 등을 함께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참여율은 객관적인 출석 통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참여 의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참여 의도를 함께 고려한 이유는 예비군 훈련의 특성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은 법적 의무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참여 수준과 성실성은 개인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한 의무 체계 안에서도 개인별 참여 태도와 수용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참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 김찬권(2009)은 예비군 훈련제도와 법규가 예비군의 만족도를 높이고 훈련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복잡한 훈련행정과 불편한 훈련환경이 제도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예비군 훈련 참여가 단순한 강제 이행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유희(2019)의 연구는 예비군 복지 만족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훈련 참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경제적 보상, 군사적 환경,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예비군의 참여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군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부담 요인, 제도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개인적 부담 요인에는 훈련시간, 생업과의 충돌, 이동 거리, 체력 부담 등이 포함되며, 제도적 요인에는 훈련의 실효성, 행정 편의성, 훈련환경, 보상체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심리·사회적 요인에는 국가안보 인식, 예비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존중, 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율을 실제 참석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예비군이 훈련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를 반영하는 행동적 특성과 인지적 수용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비군이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보상이라는 편익을 비교하여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즉, 훈련시간은 비용 요인으로, 보상체계는 편익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비용-편익 구조가 예비군 참여 행동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2.5 예비군 보상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예비군 보상체계는 일정한 행동이나 역할 수행에 대해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의 체계를 의미한다. 예비군 훈련의 맥락에서 보상체계는 교통비, 식비, 훈련보상비와 같은 직접적 금전 보상뿐 아니라, 직장보장, 사회적 인정, 공공요금 할인 등 간접적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조규호(2018)는 예비군 훈련보상에서의 “보상”을 특정 행동에 대해 부여되는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모든 형태의 대가로 정의하면서, 예비군이 훈련의무를 수행한 경우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reward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보상체계는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의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기대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인식할 때 행동에 대한 동기가 강화된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서도 보상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의지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비군 보상체계는 일반 근로 시장의 임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헌법상 국방의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예비군 훈련 참여가 개인의 시간과 소득, 이동비용, 신체적·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보상은 단지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어느 정도 정당하게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정유희(2019)의 연구는 예비군 복지정책을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면서, 경제적 복지 실태의 핵심 항목으로 교통비, 급식비, 훈련

보상비를 제시하였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는 교통비와 급식비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훈련보상비의 적정수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훈련보상비 수준에 대한 응답은 최저임금 수준이 56.3%, 병장 수준이 17.2%, 입영훈련 수준이 15.2%, 보통 인부 노임단가 수준이 10.0% 순으로 나타났다.

조규호(2018)의 '예비군 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는 보상체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예비군 훈련 참여자의 약 63%가 현재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적정 보상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보고한다. 또한 개인이 교통비와 식비 등에서 실제로 추가 부담을 지고 있어 불만이 누적된다고도 설명한다. 더 나아가,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성과 있는 훈련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는 동시에 보상체계의 현실화가 단기적으로는 동원훈련 참가자의 불만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예비군 훈련 제도발전과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당한 보상 제공 후에 자발적인 훈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보상체계가 참여 유인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잘 보여준다.

보상체계 이론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예비군 보상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첫째, 비용 보전 기능이다. 교통비, 식비, 훈련 참가로 인한 직접·간접적인 비용을 일부 상쇄한다.

둘째, 동기유발 기능이다.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훈련 참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따라서 보상체계는 예비군의 참여 태도 형성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조절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훈련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보상이 충분하다고 인식되면 개인이 느끼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같은 훈련시간도 더 큰 부담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

2.6 변수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핵심 변수는 훈련시간, 참여율, 보상체계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 역시 이 세 변수 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6.1 훈련시간과 참여율의 관계

훈련시간과 참여율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계량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두 방향의 논리를 제시한다. 하나는 훈련시간이 충분해야 전투준비태세가 유지된다는 군사적인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훈련시간이 길어질수록 민간인의 부담이 커져 참여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논리이다.

특히 박세희(2024)는 훈련유형의 복잡성과 시간 부담이 오히려 훈련 불참이나 우회적 훈련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강갑칠(1999)은 현행 예비군 훈련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실전적 훈련 강화를 위해 동일한 훈련시간을 보다 폭넓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김찬권(2009)도 국가안보와 전투력 유지 관점에서 훈련시간의 확대와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훈련시간은 전투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이 부담으로 지각할 경우 참여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양면적인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대해 단순히 선형적 효과를 가지기보다는 제도상의 설계나 보상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2.6.2 보상체계와 참여율의 관계

보상체계와 참여율의 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유희(2019)는 예비군 복지 만족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특히 경제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조규호(2018) 역시 적정수준의 보상 제공이 예비군의 자발적 훈련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예비전력 정예화의 첩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보상이 충분하다고 인식될수록 예비군은 훈련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제도로 인식

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향후 참여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6.3 조절 효과 연구와의 연결

본 연구는 보상체계를 조절변수로 설정한다. 조절 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방향이 제3의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예비군 연구가 아니더라도, 조절 효과 구조를 취한 기존 실증연구가 도움이 된다.

조규호(2015)의 '육군 갈등 연구'는 갈등유형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갈등관리방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조절 효과 검증을 통해 변수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본 연구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 즉, 훈련시간을 독립변수, 참여율을 종속변수, 보상체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면 보상체계가 훈련시간의 효과를 완화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특히 설문지에서도 '훈련시간이 길더라도 보상이 충분하면 참여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절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인식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훈련시간은 예비전력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참여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보상체계는 예비군의 수용성과 참여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두 가지 변수(훈련시간, 보상체계)는 독립적으로만 보지 말고 상호작용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2.7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예비군 관련 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예비군 제도의 개념과 발전 방향을 제도론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강갑칠(1999), 박세희(2024) 등의 연구는 예비군 제도의 구조, 훈련체계, 전시 동원체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훈련 개선과 과학화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김찬권(2009)과 홍재익(2021)의 연구는 훈련시간, 훈련방법, 과학화 훈련장, 전문교관 체계 등을 중심으로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복지와 보상정책에 주목한 연구이다. 정유희(2019)와 조규호(2018)는 예비군의 복지 만족, 훈련보상비 현실화, 실비보전과 정당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는 몇 가지 공통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통합적으로 다룬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훈련시간의 부족 문제나 보상비 현실화 문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훈련 개선 연구는 훈련시간과 방법의 실효성에 주목했고, 복지 연구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효과가 보상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통합적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예비군 개인의 참여 의도를 중심 변수로 설정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많은 연구가 제도 개선 방향이나 정책 제언에 집중하였으나, 예비군이 실제로 왜 참여하고 왜 회피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참여 의향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심리·행동 차원의 실증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셋째, 조절 효과 구조를 활용한 예비군 연구가 드물다.

군 관련 실증연구에서는 조절 효과 분석이 활용된 사례가 존재하지만, 예비군 훈련시간·참여율·보상체계를 연결한 연구모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도 확장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훈련시간을 독립변수, 참여율을 종속변수, 보상체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세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 안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통합적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경험, 참여 의도, 시간 부담, 보상 인식을 동시에 측정한다는 점에서 실증성이 높다.

셋째, 본 연구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단순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어떤 요인이 참여율을 변화시키는가를 계량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기존의 훈련 개선 논의와 보상 현실화 논의를 연결하여 예비군 제도 개선을 보다 실질적이고 설명력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HANSUNG UNIVERSITY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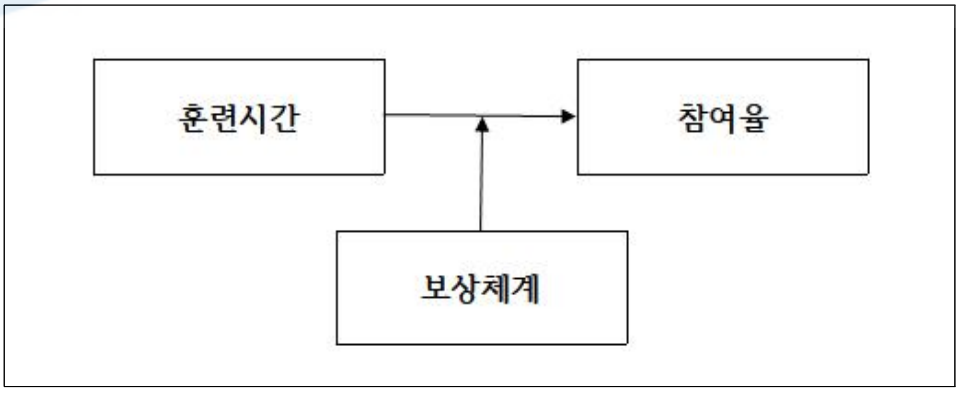
3.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상체계가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훈련시간을 독립변수로, 참여율을 종속변수로, 보상체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훈련시간은 예비군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인식하는 시간적 부담과 훈련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참여율은 실제 훈련 참여 경험과 더불어 향후 참여 의향 및 성실 참여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보상체계는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보상 수준과 보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 간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넘어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즉,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은 보상체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조절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조절 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3의 변수에 의해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조직 행동 및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분석 개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즉,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보상체계가 이 관계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구조를 가정한다.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훈련시간을 비용 요인, 보상체계를 편익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2.1 훈련시간과 참여율의 관계

훈련시간은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필수 요소이지만, 예비군 개인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인의 신분에서 수행되는 예비군 훈련은 생업 및 학업과 병행되기 때문에, 훈련시간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참여 회피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박세희(2024)는 훈련유형과 시간 구조가 복잡할 경우 예비군이 훈련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보상체계와 참여율의 관계

보상체계는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유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예비군 복지 만족은 훈련 참여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적 보상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규호(2018)는 적정수준의 보상이 제공될 경우 예비군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

조절 효과 관점에서 볼 때,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은 보상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한 훈련시간이라도 보상이 충분하다고 인식될 경우 개인이 느끼는 부담은 감소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상이 부족하다고 인식될 경우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조규호(2015)의 조직 행동 연구에서도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보상체계는 훈련시간과 참여율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각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3.3.1 독립변수: 훈련시간

본 연구는 객관적 훈련시간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적 부담(perceived time burden)이 참여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행동과학적 관점에 따라 주관적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Q11. 현재 예비군 훈련시간은 부담스럽다.

Q12. 훈련시간이 길어질수록 참여 부담이 증가한다.

Q13. 훈련시간 때문에 생업 또는 학업에 지장이 있다.

Q14. 훈련시간이 늘어난다면 훈련 참여 의지가 낮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훈련시간을 객관적 시간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부담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조직 행동연구에서 개인의 인지된 부담(perceived burden)이 실제 행동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3.3.2 종속변수: 참여율

참여율은 실제 참여 경험과 참여 의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율을 참여 태도 및 참여 의향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Q16. 나는 앞으로도 예비군 훈련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Q17. 훈련 통지를 받으면 가급적 참석하려 한다.

Q18. 예비군 훈련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19. 훈련여건이 개선된다면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3.3.3 조절변수: 보상체계

보상체계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경제적 보상수준 및 보상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Q21. 훈련보상비, 급식비, 교통비 실비보상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Q22. 보상수준이 높아지면 훈련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Q23. 현행 보상체계는 예비군에 대한 국가의 존중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한다.

Q24. 훈련시간이 길더라도 보상이 충분하다면 참여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3.3.4 통제변수: 일반사항

연구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 개인적인 특성이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령, 직업, 월평균 소득, 예비군 연차, 군 복무형태, 군 복무 당시 소속을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3.4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지역예비군이며,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훈련시간, 참여율, 보상체계 인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응답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5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및 조절회귀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훈련시간, 보상체계 및 참여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3.5.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였다. Cronbach's α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응답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신뢰도 검증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이면 탐색적 연구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0.7 이상이면 양호한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3.5.2 타당도 분석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훈련시간, 보상체계 및 참여율에 관한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이 연구 목적과 이론적 개념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측정 문항의 일관성과 적합성은 신뢰도 분석결과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항목을 근거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중심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5.3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 관련성의 방향과 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훈련시간, 보상체계 및 참여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 간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5.4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대표적인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보상체계가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계수(β)의 방향과 유의확률(p-value)을 기준으로 변수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였다.

3.5.5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특정 변수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체계가 훈련시간과 참여율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후,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훈련시간 × 보상체계)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여율 = $\beta 0$ + $\beta 1$(훈련시간) + $\beta 2$(보상체계) + $\beta 3$(훈련시간 × 보상체계) + ε

HANSUNG UNIVERSITY

Ⅳ.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훈련에 참여한 지역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된 설문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401부의 유효 표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4-1]과 같다. 본 연구는 실제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직업, 소득수준, 예비군 연차 등 개인적 특성이 참여율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적 특성을 함께 파악하였다. 응답자의 다수는 23~25세 연령층에 해당하였으며 학생 신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예비군 1~3년차 응답자가 전체 표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예비군 훈련제도에 대한 인식과 참여행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연령

구분	20~22세	23~25세	26~28세	29~31세	32세 이상
연령	10명	266명	93명	22명	10명
비율	2.5%	66.3%	23.2%	5.5%	2.5%

2. 직업

구분	학생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취업준비생
직업	299명	49명	7명	11명	35명
비율	74.6%	12.2%	1.8%	2.7%	8.7%

3. 월평균 소득

구분	없음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득	204명	115명	47명	20명	16명
비율	50.9%	28.7%	11.6%	4.9%	3.9%

4. 복무 연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연차	121명	119명	94명	43명	14명	10명
비율	30.2%	29.6%	23.4%	10.8%	3.5%	2.5%

5. 복무형태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특례
복무형태	305명	34명	40명	22명
비율	76.1%	8.4%	10%	5.5%

6. 복무 당시 소속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소속	312명	23명	29명	15명	22명
비율	77.8%	5.7%	7.2%	3.7%	5.6%

본 연구의 응답자는 모두 예비군 훈련 경험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문제 검증에 적합한 표본구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인식, 참여 의향 및 참여 태도,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예비군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군 훈련은 현역 복무와 달리 민간인의 신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 학업,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간의 부담과 보상체계 인식이 참여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함으로써 예비군 개인의 실제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참여 경험뿐만 아니라 향후 참여 의향 및 참여 태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이는 참여율을 단순한 출석률의 개념이 아니라 예비군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적·심리적 지표로 이해하려는 연구목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보상체계가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며, 예비군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4.2.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설문 문항 수	Cronbach's α
훈련시간	4	.776
참여율	4	.774
보상체계	4	.757

훈련시간 변수는 Cronbach's Alpha .776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율 변수는 .774, 보상체계 변수는 .757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0.7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실제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훈련시간 4개 문항, 참여율 4개 문항, 보상체계 4개 문항에 대한 설문을 받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종합 및 분석 간 활용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훈련시간은 α=.776, 참여율은 α=.774, 보상체계는 α=.757로 나타나 모든 변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어 후속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보상체계 변수는 훈련보상비, 교통비, 급식비, 국가의 인정 수준 등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응답자마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보상요소가 달라 문항 간 응답 패턴이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는 비용-편익 구조에서 편익 요인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이며, 후속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에서도 참여율과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군이 체감하는 보상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4.2.2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중심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문항과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훈련시간, 참여율, 보상체계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안보 및 예비전력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측정항목을 참고함으로써 문항의 이론적 적합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 기반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개념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4.3.1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아래 [표 4-3]와 같다.

[표 4-3]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훈련시간 부담	401	3.558	0.852
참여율	401	4.083	0.630
보상체계 인식	401	4.180	0.719

먼저 훈련시간 부담의 평균은 3.558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현재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비군은 현역군인과 달리 민간인의 신분으로 학업, 직장생활,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훈련시간 증가는 단순한 시간 소요를 넘어 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의 증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제도가 전투준비태세 유지라는 군사적 목적과 개인이 체감하는 시간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율의 평균은 4.08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예비군 훈련의 필요성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예비군들은 훈련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예비전력 유지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의향과 제도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군 참여율 문제는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훈련 운영방식과 참여환경의 개선 여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상체계 인식의 평균은 4.180으로 세 변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예비군 훈련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예비군들이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예비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상체계가 참여율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상체계가 실제로 참여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4.3.2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훈련시간	참여율	보상체계
훈련시간	1	-.112*	.231***
참여율	-.112*	1	.327***
보상체계	.231***	.327***	1

(* p < .05, *** p < .001)

분석결과 훈련시간과 참여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12, p<.05). 이는 훈련시간에 대한 부담 인식이 증가할수록 참여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보상체계와 참여율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327, p<.001). 즉 보상체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참여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231, p<.001), 이는 훈련시간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보상체계의 필요성 또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예비군은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을 비교하여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훈련시간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역시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참여율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보상체계와 참여율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예비군의 참여 행동이 단순한 법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 등 다양한 유인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적절한 보상은 예비군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훈련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보여준다. 즉,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는 서로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라 예비군의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상이한 영향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향후 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4 가설 검증

4.4.1 훈련시간과 보상체계가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보상체계가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4-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인 훈련시간 부담(X)과 조절변수인 보상체계 인식(M)이 종속변수인 참여율(Y)에 미치는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H1: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보상체계 인식은 참여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5] 다중회귀 분석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값	유의확률(p)
상수	3.237	-	16.846	<.001
훈련시간 부담(X)	-.146	-.198	-4.154	<.001
보상체계 인식(M)	.327	.373	7.829	<.001

분석결과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8, p<.001). 이는 예비군이 훈련시간을 부담스럽게 인식할수록 훈련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예비군이 훈련시간을 단순한 군사훈련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예비군은 현역군인과 달리 민간인의 신분으로 직장생활, 자영업, 학업 및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훈련시간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 역시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참여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도 일치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행동을 결정할 때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게 된다. 예비군 역시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게 되며, 부담이 증가할수록 참여 의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훈련시간은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비용 요인(cost factor)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73, p<.001). 이는 예비군이 현재 보상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보상수준 향상을 기대할수록 훈련 참여에 대한 태도와 의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채택되었다.

이는 적절한 훈련보상비와 실비보상이 제공될 경우 예비군의 제도 수용성과 참여 동기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예비군 참여 행동이 단순히 훈련시간 또는 보상체계 중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예비군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훈련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상체계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4.4.2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 검증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는 보상체계가 훈련시간 부담과 참여율 간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H3 : 보상체계는 훈련시간과 참여율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훈련시간, 보상체계, 상호작용항(훈련시간 × 보상체계)을 투입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4-6]와 같다.

[표 4-6] 조절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t값	유의확률(p)
상수	2.434	-	3.652	<.001
훈련시간(X)	.087	.117	.459	.646
보상체계(M)	.522	.596	3.250	.001
상호작용항(X x M)	-.056	-.430	-1.258	.209

분석결과 상호작용항(X × M)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430, p=.209). 비록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는 보상체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대한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373, p<.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절 효과의 부재 역시 예비군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결과로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보상체계가 참여율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은 수행하지만, 훈련시간 증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예비군들은 보상비 인상이나 복지혜택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훈련시간 자체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까지 상쇄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보상체계가 참여 동기를 높이는 기능은 수행하나, 훈련시간 증가에 따른 구조적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직장인 예비군의 경우 훈련 참여를 위해 연차를 사용하거나 업무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현재의 훈련보상비 수준만으로는 충분히 보전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보상체계의 개선만으로는 참여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훈련시간의 적정화와 훈련방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상체계가 참여율 향상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훈련시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5 분석결과 종합

본 절에서는 각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훈련시간과 보상체계가 예비군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가 예비군 정책과 제도 개선에 갖는 함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5.1 훈련시간은 참여율을 감소시키는 핵심 요인

분석결과 훈련시간의 부담은 참여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8, p<.001). 이는 훈련시간이 증가할수록 예비군의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예비군 훈련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역군인의 경우에는 군 복무 자체가 본연의 임무이지만, 예비군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군에게 훈련시간은 단순한 군사교육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시간과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는 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연구 응답자의 74.6%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훈련시간 증가는 단순한 시간 부담을 넘어 학업 및 취업준비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 예비군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직장인의 경우 연차 사용, 업무 공백 및 승진 기회 감소 등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적 손실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역시 학업과 시험 준비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훈련시간 증가는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 증가가 아니라 다양한 기회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길어질수록 참여 의향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예비군 훈련정책 수립 시 단순히 훈련시간을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훈련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5.2 보상체계는 참여율을 높이는 중요한 유인요인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73, p<.001). 이는 예비군들이 보상체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보상체계 인식의 평균값이 4.1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예비군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보상체계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정유희(2019)와 조규호(20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적정수준의 보상이 예비군의 훈련 수용성과 참여 의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안보를 위한 법적 의무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은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가 예비군의 희생과 기여를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상체계는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참여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예비군 보상비 인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실질적 보상체계 개선이 참여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5.3 보상체계는 훈련시간 부담을 상쇄하지 못함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보상체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호작용항 분석 결과 p=.209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는 보상체계가 참여율을 높이는 직접적 효과는 존재하지만, 훈련시간 증가로 인한 부담 자체를 유의미하게 완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현재 예비군 보상수준이 훈련시간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 예비군의 경우 연차 사용, 업무 공백, 승진 기회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는 실제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손실은 단순한 훈련보상비 인상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는 향후 예비군 정책이 단순한 보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훈련시간의 적정화, 훈련방식 개선, 훈련일정 선택권 확대 등 구조적인 개선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4.5.4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한 해석

본 연구는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행동을 결정할 때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이론적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시간은 참여율을 감소시키는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보상체계는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편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보상체계가 훈련시간의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 결과는 비용과 편익이 단순히 상호대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예비군은 훈련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훈련시간이라는 비용과 보상체계라는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비용-편익 구조가 참여율 결정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4.5.5 소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예비군 참여 행동은 단순히 법적 의무나 국가안보 의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예비군은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 및 제도적 인정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참여 여부와 참여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군 참여율은 개인의 의무감뿐만 아니라 훈련시간이라는 비용 요인과 보상체계라는 편익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훈련시간은 참여율을 낮추는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단순한 교육훈련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학업, 생업,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예비군은 현역군인과 달리 민간인 신분에서 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시간 증가는 곧 개인의 시간 손실, 소득감소, 업무 공백, 학업 차질 등 다양한 기회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훈련시간은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참여율을 저해할 수 있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다.

둘째, 보상체계는 참여율을 높이는 편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상체계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예비군들이 보상을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희생과 기여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상체계는 예비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수용성, 공정성 인식,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보상체계가 참여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훈련시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의 영향력은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보상수준이 높아지더라도 훈련시간 자체가 길어질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 업무 공백, 학업 차질, 심리적 부담까지 모두 보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상체계는 참여율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훈련시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는 충

분조건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예비군은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본 연구는 훈련시간이 비용 요인으로, 보상체계가 편익 요인으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예비군 참여율 향상을 위해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훈련시간은 군사적 필요성과 개인적 부담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보상체계는 이러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참여 동기를 높이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체계만으로는 훈련시간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예비군 제도 개선은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예비군의 참여율 향상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의 실질적 전투준비태세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용 요인과 편익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예비전력 관리정책이 단순한 통제 중심 접근에서 참여 유인 중심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구감소와 병역자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예비군 제도는 단순히 훈련시간 확대를 통한 양적 접근이 아니라 참여율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질적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훈련시간과 보상체계의 균형이 예비군 참여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향후 예비전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상체계가 이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실제 예비군 훈련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훈련시간, 참여율, 보상체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군이 훈련시간 증가를 단순한 교육훈련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예비군은 현역군인과 달리 민간인의 신분으로 직장생활, 학업,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시간 증가는 다양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분석결과는 훈련시간이 길어질수록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훈련시간이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군들이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보상받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보상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 또한 증가함을 의미한다. 특히 보상체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예비군의 희생과 기여를 인정하는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은 참여율 향상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보상체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상체계가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훈련시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할 정도의 영향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예비군이 체감하는 부담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적 손실, 업무 공백, 학업 차질, 심리적 부담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상쇄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훈련시간

은 참여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용(cost)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보상체계는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편익(benefit)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군 참여 행동이 단순한 의무이행이나 국가안보 의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예비군 참여율이 훈련시간이라는 비용 요인과 보상체계라는 편익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훈련시간은 참여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상체계는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현재의 보상체계는 훈련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예비군 정책이 단순히 훈련시간을 확대하거나 보상비를 인상하는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2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보상체계가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발견은 예비군 참여 행동을 비용-편익(cost-benefit)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비군이 훈련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법적 의무나 국가안보 의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이라는 편익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행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기본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훈련제도 개선, 훈련 만족도, 보상수준 향상 등 개별 요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훈련시간이라는 비용 요인과 보상체계라는 편익 요인을 하나의 분석 틀 안에서 검증함으로써 예비군 참여 행동이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예비군 연구가 특정 제도나 정책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참여 행동 전반을 설명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훈련시간을 단순한 군사적 필요요소가 아니라 예비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예비군 관련 연구들은 훈련시간을 당연하게 주어지는 제도적 조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훈련시간 자체가 예비군의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특히 예비군은 현역 군인과 달리 민간인의 신분으로 학업, 직장생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시간은 단순한 군사적 요소를 넘어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본 연구는 보상체계가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대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인식할 때 행동에 대한 동기가 강화된다. 본 연구에서도 보상체계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군 훈련 참여 역시 보상에 대한 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예비군 연구에서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심리적 보상, 사회적 인정, 제도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편익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보상체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훈련시간과 참여율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역시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연구에서는 가설이 채택된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설이 기각된 결과 또한 변수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결과는 보상체계가 참여율을 높이는 직접 효과는 존재하지만 훈련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예비군 참여 행동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의 직업, 소득수준, 가족 환경,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본 연구는 참여율을 단순한 출석 여부가 아니라 참여 의향과 참여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예비군 참여는 실제 출석 여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제도에 대한 수용성, 향후 참여 의향, 훈련에 대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행동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참여율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예비군 참여 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이론과 기대이론의 설명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라는 비용·편익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해 예비군 참여 행동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예비군 연구가 행동과학적 관점과 정책적 관점을 결합한 보다 정교한 연구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3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예비군 훈련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훈련시간은 참여율을 감소시키는 비용 요인으로, 보상체계는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편익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비군 참여 행동이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예비군 정책은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참여율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통합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1) 훈련시간의 적정화와 훈련 효율성 제고

본 연구결과 훈련시간은 참여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시간이 길어질수록 예비군들이 학업, 직장생활,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단순히 훈련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의 훈련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훈련 시간의 양적 확대보다 훈련의 질적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훈련내용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전투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과목 중심으로 훈련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체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시간 내에서도 보다 높은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보상체계의 현실화와 보상수준 개선

본 연구결과 보상체계는 참여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군들이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절히 보전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인식이 참여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훈련보상비는 단순한 상징적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훈련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훈련보상비는 최저임금 수준과 연계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비군 훈련 참여를 국가안보를 위한 공적 기여로 인정하는 동시에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3) 통합적 보상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훈련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비군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시간적 손실, 업무 공백, 학업 차질, 심리적 부담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특히 직장인 예비군의 업무 공백,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학생의 학업 차질 등 다양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상정책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방지 제도 강화, 훈련 기간 중 근로권 보호, 세제 혜택, 공공시설 이용 우대, 국가자격시험 응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통합적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 참여 유도형 예비군 제도 설계

본 연구결과는 예비군 참여 행동이 강제적 통제보다 개인의 참여 의지와 수용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 훈련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일정과 훈련시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훈련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훈련 시기와 훈련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훈련제도'를 도입한다면 참여자의 만족도와 훈련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참여율 향상뿐 아니라 예비군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5)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예비전력 정책 강화

향후 병역자원의 감소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비군 제도는 단순한 병력 유지 수단이 아니라 국가 총력방위체계의 핵심 요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군을 단순한 동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전략적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감소 시대에는 제한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참여율 제고와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예비전력 정책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예비군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별개의 정책영역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훈련시간은 참여를 저해하는 비용 요인으로, 보상체계는 참여를 촉진하는 편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예비군들은 이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예비군 정책은 훈련시간의 적정화, 훈련 효율성 향상, 보상체계 현실화, 직장보호 강화, 선택형 훈련제도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비군 참여율과 전투준비태세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5.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비군 참여 행동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예비군 제도 개선과 예비전력 운영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라는 한계를 가진다. 예비군 참여에 대한 인식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안보 상황 변화,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나 정책 변화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자기보고식(self-report)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설문 응답은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행동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예비군이 실제 훈련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참여 의향은 낮게 나타났지만 실제 훈련에는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보상체계 변수는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응답자들이 각 문항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상체계 변수의 신뢰도 계수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는 지역예비군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전체 예비군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은 훈련 목적, 훈련시간, 임무 수행 방식 및 동원체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훈련에 대한 인식 역시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예비군 참여율을 설명하였으나,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비군 참여 행동은 개인의 국가안보 의식, 군 복무 경험, 직업 특성, 소득수준, 가족 환경, 조직문화, 직장 지원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은 참여율의 잔여 변동은 개인의 가치관, 안보의식, 사회적 책임감, 조직문화와 같은 비계량적 요인의 영향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참여 데이터와 설문자료를 결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수준 변화에 따른 참여 행동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연구 또는 정책효과 연구가 요구되며,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예비군 유형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 변화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는 시계열 연구와 국가안보 의식, 군 복무 만족도, 직장 지원 수준 등 다양한 사회 심리적 변수를 포함한 통합적 연구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집단을 장기간 추적하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예비군 참여 행동의 변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예비군 훈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훈련시간과 보상체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 개인의 참여 행동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와 병역자원 감소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예비군 정책은 단순히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참여율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본 연구가 향후 예비군 제도 개선과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예비군 참여율 제고와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비전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국방부(2022),『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조규호(2018),『예비군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 연구논문

강갑칠(1999), “예비군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경성대학교.
김찬권(2009),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군훈련 개선방안 연구”, 서울: 건양대학교.
정유희(2019), “일반예비군의 복지 만족에 대한 인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 상지대학교.
조규호(2012), “한국병력동원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성대학교.
조규호(2015), “육군 초급 장병의 유형별 갈등수준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한성대학교.
박세희(2024), “한국 예비군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대전: 한남대학교.
홍재익(2021),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한 예비군훈련 과학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 경기대학교.

부 록

[부록 1] 설문지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 효과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비군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본 설문은 **'예비군 훈련시간이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학술연구용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하신 자료는 연구자의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여러분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안보전략학 석사과정 김 해 왕

[일반사항]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2세 ② 23~25세 ③ 26~28세 ④ 29~31세 ⑤ 32세 이상

2.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취업준비생 ⑥ 기타

3.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음 ② 199만원 이하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만원 이상

4. 귀하의 예비군 훈련 몇 년 차이십니까?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⑥ 6년차
⑦ 7~8년차

5. 귀하의 군 복무 당시 복무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현역 ② 상근예비역 ③ 사회복무요원 ④ 병역 특례

6. 귀하의 군 복무 당시 소속은 어디입니까?
① 육군 ② 해군 ③ 공군 ④ 해병대 ⑤ 기타( )

[예비군 훈련 참여 경험]

7. 최근 1년간 예비군 훈련에 실제로 참여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8. 최근 1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거나 연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불참하거나 연기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장 ② 학업 ③ 건강 문제 ④ 훈련시간 부담 ⑤ 보상 부족
⑥ 거리/교통

10. 귀하는 예비군 훈련에 대체로 성실히 참여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훈련시간에 대한 인식]

11. 현재 예비군 훈련시간은 부담스럽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훈련시간이 길어질수록 참여 부담이 증가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훈련시간 때문에 생업 또는 학업에 지장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훈련시간이 늘어난다면 훈련 참여 의지가 낮아질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참여율에 대한 인식]

15. 나는 앞으로도 예비군 훈련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나는 훈련 통지를 받으면 가급적 참석하려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예비군 훈련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훈련여건이 개선된다면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HANSUNG UNIVERSITY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

구 분	훈련보상비	급식비	교통비
동원훈련 I형 (2박 3일 입영훈련)	95,000원	9,000원	8,000원
동원훈련 II형 (3박 4일 출·퇴근훈련)	50,000원		

19. 훈련보상비, 급식비, 교통비 실비보상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보상수준이 높아지면 훈련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현재의 보상체계는 예비군에 대한 국가의 존중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훈련시간이 길더라도 보상이 충분하다면 참여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끝까지 설문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Reserve Forces Training Duration on Participation Rat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the Perceptions of Local Reserve Forces

Kim, Hae-Wang

Major in Military Strategy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reserve forces training duration on participation rates and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 compensation system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duration and participation. As South Korea faces a decline in military manpower and an increasingly complex security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continues to grow. However, the current reserve forces system faces challenges related to participation, training effectiveness, and compensation, highlight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established training duration as the independent variable, participation rat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compensation system as the moderating variable. Participation was conceptualized not only as actual attendance but also as

participation intention and participation attitud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reserve force personnel, and empir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ing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aining dur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articip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longer training periods increase the time and economic burdens perceived by reservists, thereby reducing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Second, the compensation syste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articipation. This indicates that reservist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when they perceive compensation as fair and adequate,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both economic incentives and institutional recogni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mpensation syst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duration and particip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though compensation positively influenced participation, it was not sufficient to alleviate the burdens associated with increased training dur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serve force participation behavior can be explained from a cost–benefit perspective. Training duration functions as a cost factor that discourages participation, whereas the compensation system functions as a benefit factor that encourages participation. The results also support the explanatory power of Rational Choice Theory, which argues that individuals make decisions by weighing expected costs and benefits.

This study is academically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s the effects of training duration and compensation within a single analytical framework and expands the concept of participation to include behavioral intentions and attitude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findings indicate that improving reserve force participation requires not only the rational adjustment of training duration but also the development of realistic and comprehensive compensation systems.

Ultimately, reserve force policies should adopt an integrated approach that balances training requirements and compensation incentives in order to enhance participation and maintain combat readiness effectively.

Keywords: Reserve Forces, Training Duration, Participation Rate, Compensation System, Rational Choice Theory, Moderating Effect, Combat Readiness

HANSUNG UNIVERSITY